

대한민국 한강, 부활을 꿈꾸다 연재 ❶ 한강 르네상스란?

# 한강은 이제 飛<sub>비</sub>上<sub>상</sub>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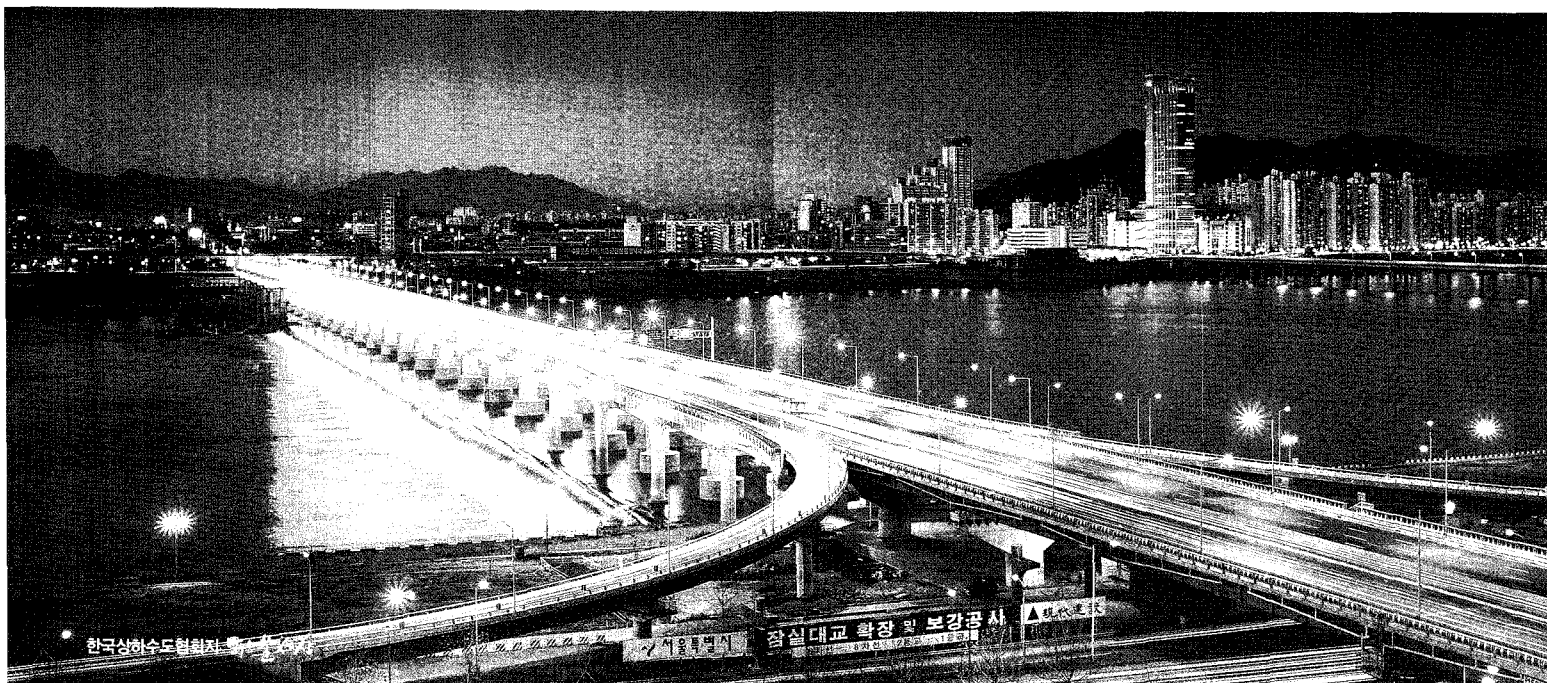
서울·경기·충북·강원 일대를 흐르는 한강 유역에는 12개의 공원이 있고 하루 평균 15만명 가량의 시민들이 이곳에서 여가를 즐긴다. 하지만 현재의 한강은 숨은 가능성과 가치를 활용하지 못한 채 일차원적인 기능만을 수행하고 있다.

한강을 두고 제기되는 문제는 단순히 기능적 측면만은 아니다. 우선 서울은 한강이 기점에 되어 동서, 남북으로 갈려지는 이중적 단절을 겪고 있다. 이는 서울의 발전과 통합을 저해하는 요소로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한강변 토지가 주거 위주로 획일적으로 이용되어 공공활용이 낮을 뿐 아니라 도시경관을 저해하고 있는 것 역시 문제로 지적된다. 또한 하천 가장자리가 콘크리트 하안으로 조성되어 있어 생태성과 친수성이 결여되어 있다. 상·하류의 뱃길이 단절되어 관광 등 경제적 가치가 창출되지 못하고 있는 것 역시 아쉬운 점이다. 서울 시민의 사랑을 받는 한강 공원이 단순 체육시설과 휴식시설 위주로 구성되어 있는 것은 한강이 지닌 문화적 요소로서의 기능을 충분히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증거다.

이제 서울에도 상징 브랜드가 필요하다

‘한강 르네상스 프로젝트’의 핵심은 도시의 이미지를 바꾸는 데 있다. 사실 한강변은 주거 위주의 획일적인 토지로 이용되면서 다소 무겁고 칙칙한 느낌을 준다. 도심을 흐르는 강변의 이미지는 도시 전체의 이미지를 좌우할 수밖에 없다. 결국 한강이 바뀌어야 서울의 이미지가 달라진다. 서울시는 한강을 관광 자원화하고 도시계획의 중심축으로 설정해 서울의 상징으로 만들겠다는 야심찬 계획을 세우고 있다. 한마디로 한강을 가치 있는 ‘브랜드’로 만들겠다는 것이다.

중국 사회과학원과 미국 버크넬 대학이 조사하여 발표(110개 대도시의 생활환경, 사회환경, 부문별 산업 경쟁력 등 75개 지표를 계량화 함)한 ‘세계 도시 경쟁력 보고서’에 따르면 서울의 도시경쟁력은 27위라고 한다. 서울이 도시로서의 경쟁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는 조사 결과는 그다지 놀라운 것이 아니다. 남산N타워나 63빌딩, 경복궁, 한강시민공원 등 볼거리는 분명 있지만 서울의 대표 이미지라고 하기에는 2% 부족한 것



서울시가 밝힌 한강르네상스프로젝트의 키워드는 '회복과 창조'다. 이 키워드에는 사람·물·자연의 훼손된 관계를 되찾고 동서와 남북의 소통 회복을 이루며, 한강의 가능성과 숨은 가치를 발굴하여 서울의 새로운 브랜드를 창조하겠다는 의미가 담겨 있다. 이제 한강의 변화는 시작되었다.



이 사실이기 때문이다.

파리의 에펠탑, 홍콩의 야경과 중국의 만리장성이 유명하듯 한국 혹은 서울을 떠올렸을 때 가장 먼저 연상되는 명물이 필요하다. 한강의 브랜드화를 목표로 한강르네상스프로젝트를 추진하게 된 것은 이렇듯 도시의 상징 부재로 인한 경쟁력 약화를 문제로 인식했기에 가능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서울은 강을 가장 활용하지 못하는 도시"라고 말했다. 정확한 지적이다. 한강의 길이는 481.7km이고 유역면적은 2만 6,219km<sup>2</sup>나 된다. 또한 서울을 관통하는 길이는 41.5km이며 서울 시내 수변이 서울시 행정면적의 7%(40km<sup>2</sup>)나 되니 계획대로 한강 수변을 개발한다면 서울은 새로운 도시로 태어날 것이다.

### 한강 중심으로의 도시 공간구조 재편

본래의 한강 주변에는 사람이 모여 살았고 한강을 길로 활용했다. 한강르네상스는 한강의 본래 모습을 찾는 것을 목표로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한강을 중심으로 도시 공간구조를 재편해

야 하고 그에 따른 다양한 사업도 추진되어야 한다.

한강르네상스프로젝트를 들여다보면 마곡과 난지 지역을 생태 기반으로 한 친환경 거점지로, 용산·여의도 지역, 노들섬을 업무 문화의 중심지로, 이촌·뚝섬·광나루·암사 지역을 스포츠·역사 문화의 중심지로 특화해 나가겠다는 계획이 포함되어 있다. 이미 아파트로 막힌 공간인 용산에 물을 끌어들이며 수로를 조성한다면 용산은 물과 연계된 '열린 공간'이 될 것이라는 게 오세훈 시장의 계획이다. 상암·여의도·왕십리·청량리·영동·영등포 등 기존의 부도심과 마곡·용산·뚝섬 한강변 수변도심이 연계된다면 '열린 공간'은 더욱 확장될 것이다. 부도심과 수변도심이 연계된다면 어떤 변화를 기대할 수 있을까? 이 지역들이 금융과 국제업무, 문화의 중심지로서의 발전 거점으로 다시 태어날 것이다.

이밖에 서울을 항구도시화해 한강을 주운으로 이용하여 남북간 경제·평화 협력의 기반을 조성하고 세계 일류도시를 향한 성장 동력으로 발전시킨다는 계획도 있다. 남북정상회담에서 한강 하구 개발에 합의함에 따라 빠르면 5년 내에 한강에 뱃길이 열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상황에서 이를 실현하게 된다면 서울은 명실상부한 국제적인 항구도시로서 위용을 갖추게 될 것이다.

도시문화를 확충하는 것 역시 한강르네상스프로젝트의 핵심 내용 중 하나다. 한강시민공원이 서울을 대표하는 상징적인 공원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한강 접근로를 개발하고 문화·예술·생태체험 공간 등을 대폭 확충함과 동시에 수준 높은 도시문화를 창조해 나가겠다는 계획이다.

한강르네상스프로젝트는 이미 첫 삽을 뜨고 화려한 비상을 준비 중이다. 한강의 변화로 서울이 얼마나 달라질지 사뭇 기대된다. 다음 호에서는 한강르네상스프로젝트의 8대 마스터플랜을 알아보고 보다 구체적인 청사진을 소개하고자 한다. ☺

